

맑은 하늘 그리고 길잡이 별

올해 2월 통영의 소매물도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데 너무 좋아서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년 전에도 한달이 일년처럼 길게 느껴졌는데 하지만 그때와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지금은 배를 탄다니 너무 기대되고 좋아서 기다리는 것이 길게 느껴지지만 일년 전에는 너무 아픈 항암을 했기 때문에 항암이 없는 시간으로 빨리 지나가길 빌었지요. 그런데 시간은 너무 천천히 느리게 갔습니다.

드디어 배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타자 통통통 배가 출발하고 언니 동생 그리고 나는 미리 준비해온 새우깡을 집어서 하늘위로 올렸는데 갈매가 날아와 확 낚아챱니다. 너무 재밌고 신나서 눈 깜짝할 사이 과자 한 봉지를 갈매기한테 다 주었습니다.

“엄마 나 마스크 벗으면 안돼?”

“그래! 날씨도 좋고 바닷바람은 먼지도 없으니까!”

나는 답답한 마스크가 싫지만 밖으로 나가려면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엄마한테 답답해서 안 쓴다고 했다가 혼난 적도 있는데 그날은 엄마가 허락을 해 주셨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고 기분도 최고로 좋았습니다.

작년에 내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이란 병이 걸리고 우리가족 모두 슬픔에 빠졌습니다. 나는 내가 왜 아픈지 궁금했지만 교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엄마가 보여준 진단서에도 상세불명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나쁜 병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퇴원하고 집에 와서 엄마는 매일 아침 미세먼지가 어떤지 뉴스를 봅니다. 매일 아침 20분 동네를 걷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그날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면역력 수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2주에 한번 병원가서 피를 뽑고 백혈구수와 호중구를 보는데 바로 그것이 면역력수치입니다. 지금은 유지치료로 항암 약을 매일 먹고 있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 정수기 물도 못 마시고 물도 생수를 사 먹거나 수치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생수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유지기간이지만 몇 달 동안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엄마 아빠는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아프고 나서 1년6개월 동안 집과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놀이터도 못 갔는데 밖으로 나간다니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이 있는 곳은 나한테도 좋을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처음 배를 탄다고 생각하니 너무 설레고 좋아서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소매물도에 도착하고 걸어서 등대섬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아빠가 업어줬지만 그

래도 섬이 너무 예쁘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고 섬 위로 조금 올라가자 정말로 깜깜해서 핸드폰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돛자리를 깔고 누워서 별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와 반짝반짝 과학관에서 천체투영관에서 보던 별이 그대로 보였어요. 언니 동생과 거기서 보았던 국자모양 별과 길잡이 별도 찾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과학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별 인줄 알았거든요.

“와~ 아빠 별이 여기서는 잘 보여?”

“깜깜하잖아 그리고 공기도 미세먼지 없이 하늘이 맑으니까.”

아빠는 도시의 불빛이 별을 볼 수 없게 만들었지만 그 불빛 속에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나쁜 공해와 매연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도시는 먼지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회사 때문에 도시를 떠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어디든 이렇게 소매물도 처럼 깨끗한 공기가 있다면 별도 볼 수 있고 마스크 안 쓰고 친구들도 만나 신나게 놀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픈 친구들이 모인 꿈사랑사이버학교에서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컴퓨터 화상놀이터에서 놀니다. 거기서 끝말잇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 보여주고 만들기도 하며 놀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친구들과 함께 맑은 공기가 맑은 하늘이 있는 곳에서 걱정 없이 뛰어 놀고 싶습니다.

